



# "일어나@김광석"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늌자 ✍\_1705호



검은밤의가운데서있어. 한치앞도보이지않아. 어디로가야하나어디에있을까. 둘러봐도소용없었지. 일어나일어나다시한번해보는거야. 일어나일어나봄의새싹들처럼  
[문법]+[눈 맞아 휘어진 대를]+[덱들에 동난지이 사오]+[두터비 푸리를 물고]+[성북동 비둘기]+[풀]+[사씨남정기]+[큰 산]+[만월]





05\_ <보기 1>의 ㉠~㉣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15세기 국어의 특징

- ㉠ 주격 조사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 ‘ㅣ’, ‘ㅇ’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 ㉡ 종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 ‘ㅅ’, ‘ㅃ’, ‘ㅆ’ 등의 글자가 존재하였다.
- ㉣ 초성에 오는 ‘ㅃ’은 ‘ㅆ’과 ‘ㄷ’이 모두 발음되었다.
- ㉤ 연철 표기(이어 적기)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보기2

四祖 | 便安히 묻 겨샤 현 고돌 울마시뇨 몇 間 ㄷ 지비 사르시리 잇고

九重에 드르샤 태평을 누리실 제 이 ㅃ들 ㄷ디 마르쇼셔  
- 『용비어천가』, 세종 29년(1447) -

[현대어 풀이]

사조(四祖)가 편안(便安)히 묻 계시어 몇 곳을 읊으셨느냐? 몇 칸 [間]의 집에 사시겠습니까?

구중(九重)에 드시어 태평(太平)을 누리실 적에 이 뜻을 잊지 마소서.

- ① 현대어 풀이와 ㉠을 통해 볼 때, ‘四祖 |’의 ‘ㅣ’는 주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O/X
- ② 현대어 풀이와 ㉡을 통해 볼 때, 15세기 ‘몇’의 종성은 현대 국어와 다르게 발음되었을 것이다. O/X
- ③ 현대어 풀이와 ㉢을 통해 볼 때, ‘누리실’의 초성에는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글자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④ 현대어 풀이와 ㉣로 보아 ‘ㅃ들’을 발음할 때 첫음절의 초성은 두 개의 자음으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O/X
- ⑤ ‘고돌’에 ㉤이 적용되었다고 할 때, 이를 끊어 적으면 ‘곧을’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O/X

06\_ <보기>의 어휘들을 잘 보고 아래의 괄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어휘는 한 번 씩만 사용합니다.

보기

요람搖籃 / 노고勞苦 / 보존保存 / 보전保全  
논박論駁 / 논조論調 / 기별奇別 / 수반隨伴  
재고再考 / 고찰考察 / 필적匹敵 / 교섭交涉

- ① 더운날 고생하는 여러분의 [ ]을/를 기리기 위해 시원한 아리수를 준비했습니다.
- ② 문화 유산을 미래에 온전히 [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 ③ 번개에는 천둥이 [ ]되는 경우가 많다.
- ④ 문제를 풀 땀 시간을 남겨서 헛갈렸던 문제를 [ ]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⑤ 이곳이 바로 이곳이 여러분을 키워내는 ( )이/가 될 것이다.
- ⑥ 한 시간여가 넘는 토론 끝에 점심 메뉴의 [ ]에 이를 수 있었다.
- ⑦ 이렇게 더운 날이면 자연을 [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되새겨 보게 된다.
- ⑧ 에어컨 온도를 두고 그들은 오랜 시간 열을 뽐으며 [ ]했다.
- ⑨ 신대륙을 찾아 떠나간 친구에게서 [ ]이 없어 걱정이 된다.
- ⑩ 문제를 풀 땀 천천히 [ ]하는 습관도 좋지만 때로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
- ⑪ 그 시험은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에 [ ]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나는 91점.
- ⑫ 그의 논술문은 늘 빼직한 [ ]로/으로 글을 전개해 읽는 사람의 뒷목을 데운다.



문학> 고전문문편>

[가]

- 01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톤고
- 02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나
- 03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원천석, '눈 마자 휘어진 대를'@17E수특

[나]

- 01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그 무서시라 웨는 다 사자
- 02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으스스흐는 동난지이 사오
- 03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흐렴은  
-작자 미상,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17E수특  
\*동난지이: 게로 담근 젓갈.  
\*황후: 물건.  
\*청장: 진하지 않은 간장.

[다]

- 01 두터비 프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 02 것년 산(山)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써 잇거늘 가슴이 금 즉하여 풀덕 쉼여 내듯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 03 모쳐라\* 늘낸 널식만정 에혈\*질 번흔과라  
-작자미상, '두터비 프리를 물고'@17E수특  
\*백송골: 송골매.  
\*모쳐라: 마침.  
\*에혈: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가] ⇨
- [나] ⇨
- [다] ⇨

02\_출제자의 [시어뉘니]

[가]

- ① '눈'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대'가 '굽'은 상황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절'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푸른'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세한고절'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⑥ '동난지이'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장스'는 (□현명한 / □현학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게젯'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다]

- ⑨ '두터비'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프리'는 (□강한 / □약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백송골'은 (□강한 / □약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잣바진'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② 나와 달리 가, 다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시적 대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가와 달리 나, 다는 열거를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④ 가와 달리 나, 다는 대상에 대한 풍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⑤ 나, 다는 가와 달리 작품이 진행되며 화자가 교체되고 있다.\* O/X
- ⑥ 가~다 모두 자연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O/X
- ⑦ 가, 다는 나와 달리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부름이 드러나 있다. O/X
- ⑧ 가는 나,다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⑨ 나, 다는 가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⑩ 가~다 모두 부정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직접적인 비판이 드러나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 02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 03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 04 가슴에 금이 갔다
- 05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 06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 07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 08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 09
- 10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 11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 12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 13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 14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 15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 16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 17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 18
- 19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 20 사람 가까이
- 21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 22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 23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 24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 25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 26 낡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17E수특

[나]

- 01 풀이 눕는다
- 02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03 풀은 눕고
- 04 드디어 울었다
- 05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06 다시 누웠다
- 07
- 08 풀이 눕는다
- 09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10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11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12
- 13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 14 발목까지
- 15 발밑까지 눕는다
- 16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 17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 18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 19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 20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 '풀'@17E수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출제자의 [시어뤄니]

[가]

- ① '새로 생긴' '번지'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산울림'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가슴'의 '금'은(□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새파란 아침 하늘'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메시지'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널찍한 마당'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채석장 포성'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굴뚝 연기'는 (□관찰은 / □안 관찰은 / □돌 다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예전'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예전' '사람'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① 1연의 '풀'은 (□능동적 / □수동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동풍'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날이 흐린'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2연의 '풀'은 (□능동적 / □수동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바람'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발목까지 눕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 나 모두 비유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② 가, 나 모두 대비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③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④가와 달리 나는 대상의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이 지닌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O / X
- ⑤가와 나 모두 유사한 형태의 시구를 반복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X



- ⑥ 가와 달리 나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바탕으로 시상을 마무리짓고 있다. O/X
- ⑦ 가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달하고 있다. O/X
- ⑧ 가와 나 모두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⑨ 가와 달리 나는 작품의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다. O/X
- ⑩ 가와 달리 나는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가 번갈아가며 드러나고 있다. O/X



문학> 고전소설편>

- 01 두 부인이 이 말을 듣고는 손으로 무릎을 치며 말했다.
- 02 “몇 년 전 우화암에 있는 여승 묘혜가 나에게 말하기를 신성현의 사 소저는 용모가 아름다울뿐더러 덕성까지 갖추어 참다운 요조숙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좋은 신붓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라버니께 미처 전하지 못했습니다.”
- 03 유 소사가 말했다.
- 04 “누이와 매파의 말을 들으니 그 처자가 뛰어난 듯하다. 그러나 혼인이란 큰일을 경솔하게 결정할 수 없으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는데…….”
- 05 두 부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 06 “좋은 방법이 있나이다. 내 집에 당나라 사람이 그린 귀한 관음 화상이 있는데 마침 우화암으로 보내려고 하는 터입니다. 묘혜에게 이 화상을 주어 사 씨 집으로 가서 관음찬(觀音讚)\*을 받아 오게 하면 사 소저의 재주를 알 것입니다. 그러면 묘혜가 소저의 얼굴도 볼 수 있을 것이니 좋지 않겠습니까?”
- 07 유 소사가 웃으며 말했다.
- 08 “참으로 묘한 생각이로다.”
- 09
- 10 [중략 부분 줄거리] 묘혜는 유 소사의 청을 받아들여 사 급사의 집으로 가서 사 소저를 만난 후 부탁하여 관음찬을 받아 유 소사의 집으로 돌아온다.
- 11
- 12 유 소사가 물었다.
- 13 “자세히 알아보았는가?”
- 14 묘혜가 말했다.
- 15 “그 소저는 족자 속의 사람과 같더이다.”
- 16 그러고는 급사 부인과 소저와 함께 대화한 내용을 낱낱이 말했다. 유 소사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족자를 열고 글을 보았다. 글 뜻이 맑고 아름다우며 필법이 훌륭하여 흠잡을 곳이 조금도 없었다. 또 소저의 성품이 온화하고 유순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7 “관음보살은 성스러운 여인이라. 생각하건대 주나라 때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과 같고 문왕의 아내인 태사\*와도 같도다. 자고로 부부의 화목과 자손의 번창은 부인의 일인데도 공허한 산속에 외롭게 있음이 어찌 본심이리오. 순임금의 신하였던 후직은 농사를 일으며 세상을 도왔고, 백이와 숙제는 충절을 지켜 굶주려 죽었으니, 도의 근본은 같지만 다만 서로의 처지가 다르이다. 내 화상을 바라보니 흰옷을 입고 아이를 안았으니 그 사람됨을 대강 알지라. 슬프다! 관음보살은 어찌하여 여기에 계신고? 긴 대나무 수풀에 하늘이 찬데 바다 물결이 만 리로다. 어진 덕이 세상에 비치니 세상 만물 누가 아니 공경하리오. 꽃다운 이름이 오랜 세월 남으리로다. 내 그 덕을 찬양함에 눈물이 흘러 바다가 되는구나.”
- 18 유 소사가 이 글을 보고는 매우 놀라며 말했다.
- 19 “기특하고 기특하다. 예로부터 관음찬을 지은 자가 많았지만 일찍이 이렇게 잘 지은 경우는 없었도다. 열세 살 어린 여자의 식견이 이 정도일 줄 어찌 알았으리오. 이 여자가 진정 내 아들의 신붓감이니 어찌 혼인시키지 않으리오.”
- 20 이윽고 한림을 불러 글을 보여 주며 말했다.
- 21 “네 능히 이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
- 22 한림이 글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탄복하였다.

- 23 묘혜가 하직하며 말했다.
- 24 “소승이 귀댁의 혼사를 직접 봐야 마땅하지만 어지러운 속세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탓에 남악에 계시는 스승께서 빨리 돌아오라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내일 남악으로 떠나고자 하옵나니 청컨대 관음화상을 암자에 모시고자 하나이다.”
- 25 두 부인이 말했다.
- 26 “사정이 그러니 섭섭하지만 어찌겠소. 이 화상은 애초에 스님께 시주하였으니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오.”
- 27 유 소사가 비단을 주며 은혜에 답하니 묘혜가 사례하고 떠났다.
- 28 유 소사와 두 부인이 상의하며 말했다.
- 29 “매파를 사 씨 집으로 보내 청혼하리라.”
- 30 즉시 매파 주 씨를 보내니, 주 씨가 사 씨 집에 가서 급사 부인에게 인사하고 말했다.
- 31 “유 소사에게 아들이 있는데 풍채가 세상에 제일인 까닭에 많은 매파가 모여들었지만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사옵습니다. 그러는 중 귀댁 소저의 용모가 아름답고 덕이 밝음을 아시고는 혼인을 청하십니다. 소저께서 유 씨 집안과 혼인을 하시면 높은 벼슬아치의 부인이 됨과 동시에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32 급사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주저하다가 딸의 방으로 가서 소식을 알렸다.
- 33 “네 비록 규종 여자지만 총명하니 의견을 듣고자 하노라.”
- 34 소저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 35 “제가 들은 바로는 유 소사는 현명한 재상이라 하니 그 집안과 혼인을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런데 매파의 말을 들으니 부귀와 용모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밝은 덕을 소중하게 간직한 우리 조상을 욕보이는 말이니 혼인이 마땅치 않은 듯하나이다.”
- 36 부인 또한 소저의 말을 바르게 여겨 주 씨에게 말했다.
- 37 “유 소사께서 딸의 재주와 용모를 잘못 들으시고 구혼하시는 것이라. 아이가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성장하여 배운 것이 없으니 귀한 집안과 혼인함이 마땅하지 않은지라. 돌아가 이대로 고하라.”
- 38 주 씨가 여러 번 간청했지만 부인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돌아와서 그대로 고했다. 유 소사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 씨가 사 씨 집에서 나는 대화 내용을 자세히 묻고는 말했다.
- 39 “내가 변변치 못했도다.”
- 40 즉시 주 씨를 물리치고 신성현의 지현\*을 찾아가서 말했다.
- 41 “사 씨 집과 혼인하고자 매파를 보냈더니 회답이 여차여차한 것을 보니 매파가 실수를 한 탓이라. 이제 선생이 나를 위하여 사 씨 집을 방문해 주면 고맙겠소.”
- 42 지현이 말했다.
- 43 “어찌 선생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리오. 사 씨 집에 가서 어떻게 말을 전하리까?”
- 44 유 소사가 말했다.
- 45 “먼저 사 급사의 맑은 덕을 칭송하고 다음으로 소저의 덕성을 칭송하면 반드시 혼인을 허락하리다.”

-김만중, '사씨남정기'@17E수특

\*관음찬: 관음보살의 공덕을 찬양하여 부르는 노래나 글귀.

\*태임: 문왕의 어머니로 성품이 뛰어나고 덕이 높았으며 특히 자식 교육에 남달랐다고 함.

\*태사: 문왕의 아내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는 데 정성이 높아



어머니로서 칭송이 높았음.

\*지현: 현의 으뜸 벼슬아치.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O / X
- ② 작품의 군데군데 서술자가 개입하여 서사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O / X
- ③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④ 선과 악의 대결을 통해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O / X
- ⑤ 인물의 내부에서의 갈등과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구조가 모두 드러나 있다. O / X
- ⑥ '두 부인'은 '유 소사'의 첫 번째 부인으로, '유 소사'와 함께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인물이다. O / X
- ⑦ '두 부인'은 '유 소사'와의 대화 이전에 '사 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O / X
- ⑧ '묘혜'는 '유 한림'에게 '사 씨'가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글솜씨를 지녔음을 전달하고 있다. O / X
- ⑨ '사 씨'와 '유 씨' 가문은 과거에 서로 갈등이 있었다. O / X
- ⑩ '유 한림'은 '사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못 하고 마지못해 '사 씨'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다. O / X
- ⑪ '유 소사'는 자신의 혼례 상대인 '사 소저'가 지은 관음찬을 보고 탄복하였다. O / X
- ⑫ '묘혜'는 '유 소사'의 선물을 거절하고 목적지로 떠난다. O / X
- ⑬ '유 소사'와 '사 씨' 모두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이 존재한다.\* O / X
- ⑭ '유 소사'와 '사 씨'는 모두 상대방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O / X
- ⑮ '사 씨'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 물질적 측면보다 정신적 측면을 더 높은 기준으로 두고 있다. O / X
- ⑯ '주 씨'는 '유 소사'와 '사 씨'의 집을 여러 번 오가며 '유 소사'의 뜻을 전했지만 결국 목적인 바를 달성하지 못 했다. O / X
- ⑰ '유 소사'는 '주 씨'에게서 자세한 소식을 듣고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O / X
- ⑱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명목 아래 결혼 당사자들의 선택권이 반영되지 못 했던 당시의 사회상이 드러나 있다. O / X



문학> 현대소설편>

01 [앞부분 줄거리] '나'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 샬러맨 부부가 비교적 많이 사는 마을]에 사는데, 이 마을에는 가끔 곳을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내와 '나'는 이를 불길하게 여길 만큼 소심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애써 외면한다.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아내와 '나'는 담 위에 놓인 흰 고무신짝을 발견한다. 고무신짝을 불길하게 여긴 아내는 '나' 몰래 그것을 다른 집 담장으로 던져 버리고, '나'는 '큰 산'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유년의 비 오는 어느 저녁, 버려진 '지까다비\*' 짝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열흘 후 담 밑에서 다시 그 고무신짝이 발견된다.

02

03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염병 돌듯이.”

04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이렇게 혈떡거리듯이 지껄었다.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 내리는 무당 쳐다보듯이 을씨년스러운 느낌 섞어 쳐다보았다.

05 “돌아다니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06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07 “그때 그 [고무신짝]은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지 않아.”

08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거예요.”

09 “무엇이?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었다는 말인가?”

10 “그렇지요.”

11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우락부락한 얼굴까지 되며 말하였다.

12 “왜?”

13 “왜라뇨, 당신 그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14 “던지긴 어느 집으로 던졌어?”

15 “몰라요.”

16 “…….”

17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 그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본 그 어느 집의 부부들도 찌어한 느낌에 휘어 감기며 간밤 내 근처에서 들리던 굵직한 팽과리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 집에건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졌을 것이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옮겨 보내고, 제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자 담장 안에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그렇게 제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하는 듯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로, 순이네 집에서 영이네 집으로, 영이네 집에서 웅이네 집으로, 웅이네 집에서 건이네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이 없이] 그 고무신짝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18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아내는 당장은 웃을 경향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까지 극성맞게 들어온 이놈의 고무신짝을 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 액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리는 이미 없었다.]

19 “대체 저놈의 것을 어쩌지?”

20 나는 이미 액투성이 때가 엉기엉기 묻은 듯한 그 고무신짝을 만지기도 싫어서, 엇비슷이 건너다보며 투덜거렸다.

21 “어찌긴 어째요. 놔두세요, 내가 처리할게.”

22 아내는 독 오른 표정이 되며, 악착같이 해보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23 “처리하다니, 어떻게?”

24 “아주 멀리 보내지요. 이따가 밤에.”

25 “산에라도 가져다가 버릴 요량인가?”

26 “뭣하러 산에 가져가요. 우리가 그렇게 질 수는 없는 것 아녜요.” 하고 아내는 발끈하며 다시 말하였다.

27 “밤에 저놈의 걸 들고 버스 타고 멀리 가져갈 테예요. 하다못해 [동빙고동]에라도.”

28 “어러러.”

29 나는 입을 벌리며, 악착같이 해볼 기세인 시뻘게진 아내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30 동시에 초등학교 4학년 적의 그 ‘지까다비’ 짝과 그때 그 ‘큰 산’이 구름에 껍북 가려졌던 교묘한 산천을 떠올렸다.

31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32 내가 나지막하게 혼잣소리로 중얼거리자, 아내도 나를 귀신 내리고 있는 박수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33 “…….”

34 [A]『그 ‘큰 산’은 청빛이었다. 서쪽 하늘에 늘 덩더뭉이 웅장하게 퍼져 있었다. 아침저녁으로 혹은 네 철을 따라 표정은 늘 달랐지만, 근원은 뿌리 깊이 일관해 있었다. 해 뜨기 전 새벽에는 청정한 빛으로 싱싱하고, 첫 햇볕이 쬐면 산머리에서부터 백금색으로 빛나고, 햇볕 속의 한낮에는 머물러 물러앉은 청빛이었다. 해 질 녘 저녁에는 골짜기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이 거뭇게 윤곽을 드러내고,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 간다. 봄에는 봉우리부터 여드러워지고, 겨울이면 흰색으로 험준해진다. 가을에는 침착하게 물러앉고, 여름이면 더 높아 보인다. 그 ‘큰 산’ 쪽으로 셋바람이 불면 비가 왔고, ‘큰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맞바람이 불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다. 그 ‘큰 산’은 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형태 없는 넉넉함으로 자리해 있었다. 그 ‘큰 산’이 그곳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뿌리 깊게 웅거해 있다는 것이 늘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35 깊숙하게 늘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36 아, 그 ‘큰 산’, ‘큰 산’.

37 그날 밤 아내는 악착같이 해볼 기세로, 시뻘게진 얼굴로 그 고무신짝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 싸 가지고 어디론가 나갔다가, 아홉시가 지나서야 [비시시 웃으며] 들어섰다. 과연 나갈 때의 몽뚱그려진 표정은 가셔지고,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 놓은 듯이 분위기가 한결 개운해져 있었다.

38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물었고 아내도 구태여 아무 소리도 안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로는 [서로 존중]해 줄 줄을 알고 있었다.

-이호철, '큰 산'@17E수특

\* 지까다비: 일본식 작업용 신발.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02\_ [빠]르게[바]르게

- ①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작품 인물의 심리를 주관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O/X
- ② 서술자는 객관적인 자세로 작품 속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O/X
- ③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작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O/X
- ④ 과거 상황에 대한 중심 인물의 회고가 드러나 있다. O/X
- ⑤ 이야기가 진행되며 중심 인물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O/X
- ⑥ 작품이 진행되며 인물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O/X
- ⑦ 비유적 표현으로 상황에 대한 인물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⑧ 상징적 소재의 향방이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다. O/X
- ⑨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O/X
- ⑩ 인물들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독백이 번갈아 제시되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⑥ '나'가 '큰 산'을 갈망하는 것은 '흰 고무신'을 마음껏 버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O/X
- ⑦ '동빙고동'은 아내에게 '큰 산'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O/X
- ⑧ '아내'가 '비시시 웃으며' 들어선 까닭은 '큰 산'과 같은 곳에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O/X
- ⑨ [A]에 묘사된 '큰 산'의 모습은 '큰 산'이 지닌 절대적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O/X
- ⑩ '큰 산이 안보여서 이'렇다는 '나'의 대사는 '큰 산'이, '모두'가 겪는 '흰 고무신'사건과 같은 문제를 영구히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드러낸다. O/X
- ⑪ '서로 존중'하는 모습은, 사람들이 '큰 산'과 같은 존재 없이도 사람들 사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X

03\_ <보기>와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미국의 사회학자 W.F.오그본이 주장한 문화지체(Cultural Lag) 이론은 물질 문화의 변화와 발달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오그본은 문화를 두 종류의 하위 갈래로 구분하며 기술을 포함한 물질 문화(material culture)와 가치관, 신념, 규범, 제도 및 사회적 상호 작용 양식 등을 포함하는 비물질적인 적응적 문화(adaptive culture)로 구분하고, 기술 변화의 급속도와 양적인 누적으로 인하여 비물질 문화의 변화와 적응은 항상 물질 문화의 변화의 발달의 속도를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문화 지체론을 제기하였다.

이호철의 '큰 산'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이론 물질 문화와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비물질적 문화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산업화를 바탕으로 한 주인공과 마을 사람들의 지적 측면이 물질 문화라면, '흰 고무신'으로 대변되는 미신 문화는 비물질 문화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흰 고무신'이 야기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인 유년시절의 '큰 산'을 갈망하게 된다. 이 공간은 추상적이며 정신적인 공간이지만 일시적으로나마 물질, 비물질 문화 사이의 간극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문화 지체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나'와 같은 이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의 '고무신 짝'에 대한 태도는, '문화 지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O/X
- ② '어느 집 담장 너머'는 우리 집만 아니면 된다는 '아내'의 이기주의가 드러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O/X
- ③ '대우'와 '겪는 것'의 차이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O/X
- ④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이 없'는 상황인 인물들이 마음 속에 '큰 산'과 같은 공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O/X
- ⑤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은 '우리 부부'가 이웃들과 함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문학> 수.회.시편>

- 01 나는 지금 보름달 아래 서 있다.
- 02 나는 보름달을 좋아한다. 보름달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예외 없이 싱겁고 평범하게 마련이라면, 나는 내가 그렇게 싱겁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도 하는 수 없다.
- 03 내가 가진 새벽달의 기억은 언제나 한기(寒氣)와 더불어 온다. 나는 어려서 과식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 문에 내가 그 하얗게 깔린 서릿발을 밟고 새벽달을 쳐다보는 것은 으레 옷매무새도 허술한 채 변소 걸음을 할 때였다. 그리고 그럴 때 바라보는 새벽달이란 내가 맨발로 밟고 있는 서릿발보다도 더 차고 날카롭게 내 가슴에 와 닿곤 했었다. 따라서 그것은 나에게 있어 달의 일종이라기보다 서늘 푸른 비수나 심장에 닿아진 얼음 조각에 가까웠다고나 할까. 게다가 나는 본래 잠이 많아서 지금도 내가 새벽달을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선잠이 깨었을 때다.
- 04 새벽달보다는 초승달이 나에게 한결 친할 수 있다. 개나리, 복숭아, 살구꽃, 벚꽃 등이 어우러질 무렵의 초승달이나 으스스달이란 그 연연(娟娟)하고 맑은 봄밤의 혼령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소식(蘇軾)의 ‘봄 저녁 한 시각은 천 냥에 값하나니, 꽃에는 맑은 향기, 달에는 그늘’이라고 한 시구 그대로다. 어느 것이 달 빛인지 어느 것이 꽃빛인지 분간할 수도 없이 서로 어리고 서려 있는 봄날의 정취란 참으로 흘러가는 생명에 한스러움을 느끼게 할 뿐이다.
- 05 그러나 그렇단들 초승달로 보름달을 거울 수 있으랴. 그것은 안 되리라. 마침 어우러져 피어 있는 개나리, 복숭아, 벚꽃 등이 아니라면, 그 연한 빛깔과 맑은 향기가 아니라면, 그 보드라운 숨결 같은 미풍이 아니라면, 초승달 혼자서야 무슨 그리 위력을 나타낼 수 있으랴. 그렇다면 이미 여건(與件)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초승달이 아닌가.
- 06 보름달은 이와 달라 벚꽃, 살구꽃이 어우러진 봄밤이나, 녹음과 물로 덮인 여름밤이나, 만산에 수를 놓은 가을밤이나, 천지가 눈에 싸인 겨울밤이나, 그 어느 때고 그 어디서고 거의 여건을 타지 않는다. 아무것도 따로 마련된 것이 없어도 된다. 산이면 산, 들이면 들, 물이면 물, 수풀이면 수풀,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족하다. 산도 물도 수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도 좋다. 머리 위에 보름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고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고 황홀하고 슬프고 유감한 것이다.
- 07 보름달은 온밤 있어 또한 좋다. 초승달은 저녁에만, 그믐달은 새벽에만 잠깐씩 비치다 말지만, 보름달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로 하여금 온밤을 누릴 수 있게 한다.
- 08 이렇게 보름달은 온밤을 꼭 차게 지켜 줄 뿐 아니라, 제 자신 한쪽 귀도 떨어지지 않고, 한쪽 모서리도 이 울지 않은 꼭 찬 얼굴인 것이다.
- 09 어떤 이는 말하기를 좋은 시간은 짧을수록 값지며, 덜 찬 것은 더 차기를 앞에 두었으니 더욱 귀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필경 이것은 관념(觀念)의 유희다. 행운(幸運)이 비운(悲運)을 낳고, 비운이 행운을 낳는다고 해서 행운보다 비운을 원할 사람이 있을 까.
- 10 나는 초승달이나 그믐달같이 병적(病的)이며 불완전한 것, 단편적인 것, 나아가서는 첨단적(尖端的)이며 야박(野薄)한 것 따위들에 만족할 수 없다.
- 11 나는 보름달의 꼭 차고 온전히 둥근 얼굴에서 고전적인 완전미와 조화적인 충족감을 느끼게 된다.

12 나는 예술에 있어서도 단편적이고 병적이며 말초적인 것을 높이 사지 않는다. 그것이 설령 기발하고 예리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전성과 거기에서 빛어지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에 견줄 수는 없으리라.

-김동리, '만월滿月'@17E수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서술사 과거의 추억과 경험을 환기하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O/X
- ②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O/X
- ③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O/X
- ④ 대상이 지닌 장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⑥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O/X
- ⑦ 대조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⑧ 인용의 방법을 통해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O/X
- ⑨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⑩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대상과의 재회를 희망하고 있다. O/X



+@ / +ㅈㅊㄴㅅㅁㅣ

**단[어]의[의]미**

요람搖籃\_사물의 발생지나 근원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노고勞苦\_힘들여 수고하고 애씀.

보존保存\_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

보전保全\_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미래의 의미를 담아 쓰임\*

논박論駁\_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

논조論調\_논하는 말이나 글의 투.

기별奇別\_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함.

수반隨伴\_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다.

재고再考\_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

고찰考察\_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

필적匹敵\_능력이나 세력이 엇비슷하여 서로 맞섬.

교섭交涉\_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

**미래에서온[고전문문]**

**오륵가五倫歌@주세붕@17E수특**

**해적 병설**

- 01 사람들아 사람들아 이말씀좀 들어부아
- 02 이말씀을 안들으면 사람구실 못하느니
- 03 이말씀을 잊지않고 배워야지 않겠는가
- 04
- 05 아버지는 낳으시고 어머니는 기르셨네
- 06 부모님이 아니던들 내몸똥이 있었겠나
- 07 이 은혜를 갚고파도 하늘처럼 끝없도다
- 08
- 09 종과주인 당연지킬 예절누가 만들었나
- 10 벌과개미 여왕일꾼 미물들도 아는구나
- 11 우리종들 주인님을 속이지나 마옵시다
- 12
- 13 남편님이 일할적에 도시락을 챙겨가서
- 14 전달할때 눈썹까지 끌어올려 바칩니다
- 15 고마우신 우리남편 손님처럼 대접하네
- 16
- 17 응애응애 엄마젖을 형님먹고 나도먹고
- 18 아이오아 아우님이 어머니널 사랑하심
- 19 형제간에 불화하면 개돼지라 부를테다
- 20
- 21 늙으신은 부모처럼 어르신은 형들처럼
- 22 공손하게 안대하면 짐승이랑 뭐가달라
- 23 마주치면 직각인사 절하고야 말겠어요





답\_☀️🌙☆1705호

문법>

- 01\_ X / X-스첨가도 있음 / X / O / X-탈락과 교체 한 번씩  
X / X-교체 / O / X / X-홀받침으로 교체
- 02\_ O / X-8개 / X-실질 4개 자립 1개 / O / O
- 03\_ 피동 / 사동 / 피동 / 사동 / 피동 / 피동 / 피동 / 사동 / 피동 / 사동
- 04\_ 밝은 표정의 주체가 모호-밝은 표정의 김 원장 혹은 밝은 표정의 사람들로 수정  
세가가 둘을 만난 것인지 세가와 이 선배가 강사를 만난 것인지가 모호 김 원장이 쓴 책인지, 소유의 책인지를 알 수 없음  
둘이 하는지 따로 하는지를 모름 세마만을 안 만난 것인지 세마와 함께 다른 사람도 만난 것인지를 알 수 없음
- 05\_ O / O / X-종성 / O / O
- 06\_ 노고 / 보전 / 수반 / 재고 요람 / 교섭 / 보존 / 논박 기별 / 고찰 / 필적 / 논조

문학> 고전문문편>

- 01\_ [가]\_#임그리워  
[나]\_#계정장수 잘난척마  
[다]\_#두꺼비는 깎치지마
- 02\_ 안 / 안 / 관 / 관 / 관  
안 / 현학적 / 관  
안 / 약 / 강 / 안
- 03\_ X / O / X / O / X  
X / O / O / O / X

문학> 현대운문편>

- 01\_ [가]\_#성북동 비둘기 불쌍해 #개발의 폐해  
[나]\_풀의 생명력
- 02\_ [가]\_안 / 안 / 안 / 관 / 관  
관 / 안 / 둘 / 관 / 관  
[나]\_수 / 안 / 안 / 능 / 안 / 안
- 03\_ O / O / O / O / O  
X / O / O / X / X

문학> 고전소설편>

- 01\_ #결혼의 조건 #사씨의 품격
- 02\_ X / X / O / X / X  
X / O / X-소사 / X / X  
X / X / O / X / O  
X / X / X

문학> 현대소설편>

- 01\_ #이기주의 #미신 #과거에 대한 그리움
- 02\_ X / X / X / O / X  
X / O / O / O / O
- 03\_ O / O / O / X / X  
X / X / X / O / X  
X

문학> 수.희.시편>

- 01\_ #다른달 말고 보름달이 제일 좋아
- 02\_ O / X / X / O / X  
O / O / X / O / X